

이 자기 집 庭園에 이 탑을 옮겨 놓기 위하여 解體하려다 洞民들의 反對로 失敗하였노라 일러준다. 地上으로부터의 높이 三三〇cm의 아담하고 조그만이 塔의 地臺石은 아무렇게나 쌓아 올려진 自然石地盤에 埋沒되어 그 結構를 알 수 없고 基壇面石은 通式(四)의 四枚構成이나 그 中 南面石만은 右側隅柱의 下半部를 別石으로 끼웠는데 이는 石材 裁斷形 便上 不得已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며 各面마다 幅 一五cm—一七cm의 隅柱가 造出되어 있다. 甲石은 大小 二枚로 落水面에 若干의 勾配가 졌고 副椽이 있으며 上面에 二段의 木釘과 皮임을 彫出하여 塔身을 받고 있다. 屋身石에는 各層마다 隅柱가 刻出되어 있고 屋蓋石은 받침이 三段式이며 上面에 各一段의 皮임으로 塔身을 받고 있다. 一、二層의 屋身石과 初層·三層의 屋蓋石은 各一個石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二層屋蓋와 三層屋身만은 一石으로 連接되어 있으며 上面에 一邊 一三cm 深 九cm의 角形舍利藏置孔이 있음은 注目할만 하다. 落下된 三層 屋蓋의 上面에는 直徑 七cm 深 一〇cm의 擦柱孔이 있을 뿐 露盤以上の 相輪部는 모두 없 어졌다. 各屋蓋의 落水面은 傾斜가 急하고 처마는 두꺼운 편이나 轉角의 返轉이 비교적 輕快하여 各層의 遞減도 있어서 全體的인 構造와 手法으로 ⑦ 萬魚寺 三層石塔과 彷彿한데가 있음으로 麗代의 作品이라 推定할 수가 있다. 實測值(單位cm)

基壇	面石高 一三〇	幅 七四	甲石長 一四六	厚 七	
一層	屋身高 幅 五五	隅柱幅 一二	屋蓋長 一〇七	厚 三六	
二層	二〇	五〇	九	九六	三二
三層	七	三四	五	七五	二六

註

- ① 瑩源寺址……密陽郡密陽邑活城里二區所在의 高麗寺址·本誌三五號(四卷六號)瑩源寺址와 出土遺物(尹容鎮)參照
- ② ⑦ 萬魚寺……密陽郡三浪津邑龍田里萬魚山에 있는 高麗寺刹, 本誌三八號(四卷九號)密陽萬魚寺 三層石塔(鄭永鎬)參照
- ⑧ 慈氏山……遺事 魚山 佛影條에 〈萬魚寺者, 古之慈成山也, 又阿耶斯山, 當作摩耶斯, 此云魚也〉라 하여 慈成山即慈氏山·慈氏山

④ 即 萬魚山으로서 佛蹟이 있는 名山임.
광나루(廣灘)……密州誌에 〈廣灘, 在凝川下流, 潮汐注之頭, 商船所泊之處……壬辰四月十八日, 府使朴晉, 領兵遮賊于鶴院, 朴爲賊所追, 不得由大路避渡此灘江, 右諸軍未詳其深淺, 爭先徑渡, 太半溺死〉라는 기록이 있어 壬辰亂의 遺蹟地임

⑤ 王堂……密州誌에 〈今昔勿里西, 有王堂亭, 世傳, 羅王遊幸萬魚寺時, 憇于此地〉라 하여 慈氏山佛蹟과 關聯됨

⑥ 加利寺址……廢寺後 오랜 後日에 이르러 高麗寺로 傳稱된 것이 加麗寺 或은 加利寺로 訛音된 것이 아닌가 함. 或 萬魚山(慈氏山)佛蹟圈內에 있는 寺刹이었으므로 遺事 魚山佛影條의 訶羅國佛影事에서 派生된 이름 訶羅寺에서 傳稱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음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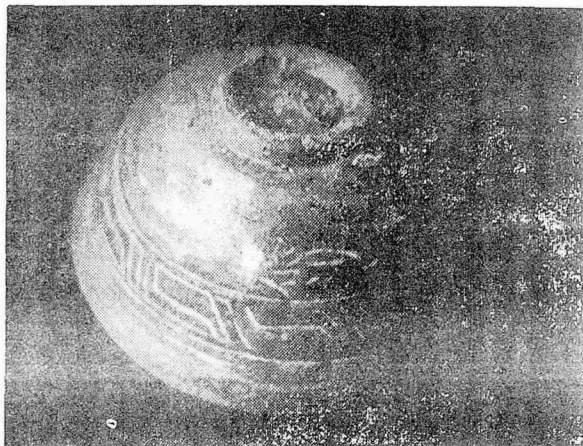
「恭安府」銘 粉靑沙器의 新例

姜 敬 淑

이번 蔣奎緒氏所藏 「恭安府」銘 沙鉢 하나를 調査할 機會가 있었기에 여기에 간단히 紹介하고자 한다.

全體的인 釉調는 靑綠과 黃綠의 靑磁末期作品의 色調를 띄고 있으며 均衡이 잡히지 않은 이글어진 沙鉢이다.

「恭安府」란 李朝初 定宗의 上王府로서 一四〇〇—一四二〇年 사이에 存續했던 官廳이름인데 이러한 恭安府銘 그릇의 例는 이미 여러 論文에 引用된 바 있다(註一). 이 恭安府銘 그릇의 胎土는 굵은 모래가 섞인 低質의 風色胎土를 使用했고 靑磁系의 透명한 釉藥을 使用했으며 그 光澤도 内外面이 대단히 良好하다. 그릇 内部의 文樣은 二重蓮瓣의 粗雜한 單線蓮瓣帶를 두르고 口緣部의 雷文帶와 의 사이에는 雙線의 蓮花文帶가 역시 성글게 象嵌되어 있으며 裏面은 三cm의 間隔을 두고 等行雙線의 白土象嵌을 한 후 그 안에 다름게 雷文帶를 넣고 있다. 이 雷文帶 아래에 다



「恭安府」三字を横으로 白土象嵌했는데 字體도 整理되지 않았으며 文字를 전혀 모르는 陶工의 筆體라고 밖에 볼 수 없고 「安」字도 획이 많이 不定하다. 이와 같은 예는 이미 알려진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江原道 原州地方에서 出土되었다고 하나 信憑할만한 근거는 없다. 이미 알려진 「恭安府」銘 그릇들과 比較할 때 그 手法이나 釉藥의 差異로 보아서 같은 窯의 生産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高七·二一九cm 口徑一六·四一一七·六cm 口徑五·七cm

〔註〕鄭良模·粉靑沙器印花文大槪 試考(歷史學報)二十七輯

考古美術 卅一之

◎ 文化財委 第一分委 第三次

日時·六六年三月十八日 一四時三〇分——一六時

場所·文化財管理局會議室

參席은 金斗鍾, 金摩基, 金允基, 李相傾, 李弘植, 黃壽永 外 文化財管理局長 文化財課長, 國立博物館管理課長, 및 강인규

一、指定 및 非指定文化財 海外搬出에 關한 問題

次期會議에서 論議하기로 議決함 일의 重大性에 비추어 보아 主管者인 國立博物館長이 出席하여 充分한 說明을 듣고 處理함이 可한

二、非指定文化財 移轉許可(神勒寺浮屠 境內移轉)——原案대로 議決함. 原位置에 標石을 세울 것

三、임해전지 지정구역내 정호시설——原案대로 議決함. 우물 지붕은 古代式으로 建立할 것

四、幸州山城 指定區域內 奇氏記念碑 建立承認——原案대로 議決함

五、晋州城內 住宅建立——原案대로 議決함

六、無緣故墓地 保存價値問題——金摩基委員長과 李弘植 一分科委員長의 調查意見書의 內容대로 處理하기로 議決함

七、永久保存財產 管理團體 指定——原案대로 議決함

◎ 文化財委 第一分委 第四次

日時·六六年三月二十二日 一四時

場所·文化財管理局長室

參席은 金斗鍾, 金摩基, 金允基, 김재원, 李弘植(金摩基委員長에 委任함) 黃壽永 外 文化財課長, 指定係長, 國立博物館管理課長 및 강인규 諸氏

一、指定 및 非指定文化財 海外搬出 問題

展示會의 出品關係는 그 節次가 바뀌었으나 이미 出品할 것이 既定事實化되어 있고 우리 文化財를 出品 展示함이 國威宣揚을 爲하여 意義가 있는 것으로 思料되어 本委員會에서는 原案대로 議決함. 앞으로 이와같은 問題는 반드시 節次에 依하여 進行되어야 할 것이니 機會에 다시 指摘하여둠

◎ 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 發掘調査

仁川市立博物館事業으로 昨年부터 推進돼 있는 仁川市 景西洞 綠靑磁窯址의